

環境管理人也 지역환경보전에 한 몫을 해야합니다

■ 편집부

“여기 이 사람 허대리, 정말 일꾼입니다 ...”

許琯환경관리인을 만나기 위해 광주에 있는 아시아자동차공업(株) 환경안전관리부를 찾았을 때, 金尙憲부장은 묻지도 않은(?) 그의 칭찬을 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옆에 앉아 있던 許관리인은 그저 말없이 웃어보였다. 창너머 가을 햇살이 투영된, 건강한 웃음이었다.

내년도 업무계획준비 관계로 바빴던 때문인지 조금은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그는 그동안 해왔던 회사의 환경관리—변천과 발전과정—그 발자취들을 회상해보고 앞으로의 환경관리에 대한 구상을 할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요즘 유명인사가 됐다. 지난 10월 5일(자연보호헌장선포 13주년 기념) 공장환경개선과 지역환경보전에 기여한 공로로 내무부장관표창을 받은 것이다. 이미 이전에도 올해 4월엔 광주직할시장, 지난해엔 환경처장관 그리고 '88년엔 환

그는 그동안 해왔던 회사의 환경관리—변천과 발전과정—그 발자취들을 회상해보고 앞으로의 환경관리에 대한 구상을 할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경보전협회장 표창 등을 수상한 바있다.

“상복이 많은가 봅니다. 제가 한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뒀으니까요.”

다소 쑥스러운 표정으로 겸손해하는 모습이였다. 하지만 그의 말대로 상복으로 돌리기에 그간의 땀과 정성이 적지않다.

許관리인이 근무하고 있는 아시아 자동차는 전 종업원이 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하수맨홀을 책임관리하는 등 오염물질배출을 최소화하기 위



▲ 허관리인의 근무처인 아시아자동차 공업은 「社山 가꾸기운동」의 선두주자.

한 전사적인 환경관리체제를 확립했다. 또한 무등산을 대상으로 「1社1山가꾸기운동」을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했으며 공해방지설비에 대한 투자우선방침 등을 바탕으로 '91년도 환경처가 지정한 환경관리 모범업체다.

그는 그동안 폐수처리효율 향상과 원단위절감 등 회사의 환경관리체제 확립에 크게 기여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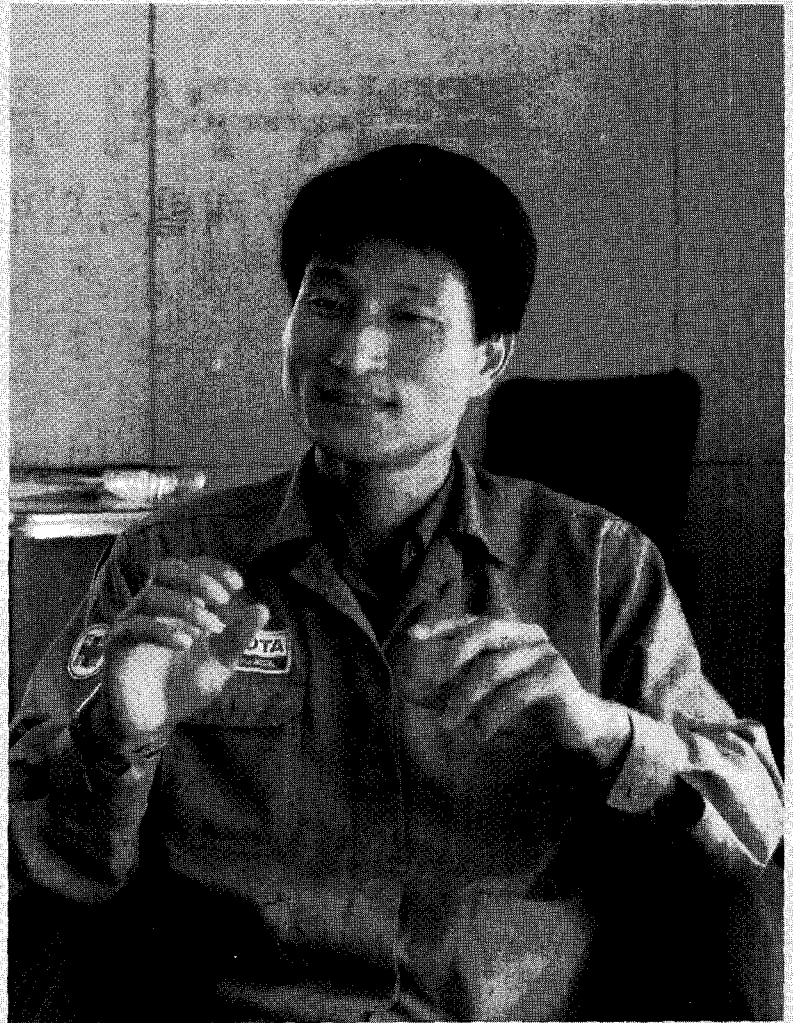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광주·전남협회의 2대 회장직을 맡아 회원들의 우호증진은 물론 환경기술세미나 개최로 관리인들의 자질향상에 노력해왔다. 뿐만 아니라 광주천과 무등산보호 등 지역환경개선에 앞장 서왔다. 현재 그는 순수민간단체인 무등산보호협회의 운영위원으로 활약중이다.

“이젠 환경전문인들도 각 직장내에서의 환경관리업무라는 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환경보전에도 적극적으로 한 몫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침착한 언행, 그는 한마디로 정적인 분위기다. 그런가하면 그 분위기 기저에는 남다른 ‘집요함’이 그림자처럼 보였다.

'79년 공해관리기사 2급 자격증 취득후 지난해 환경기사(수질)1급을 따내기까지 그가 살아온 행로를 더듬어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84년 본사에 입사한 이후 일하면서 대학과정을 마쳤고, 이번 가을학기부터 조선대



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해학과에서 좀 더 깊이있는 공부를 하고 있다.

또한 그는 그동안 부지런히 산업안전기사·화공기사 2급, 위험물취급기능사 1급 자격증도 취득했다.

‘사랑과 화목’이라는 좌우명대로 그는 人和를 중시해왔기에 직장은 물론 협의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뒀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협의회가 활성화되어 더할나위

없이 기뻐고, 현재 임원들의 다양한 활동상에 고마움을 느낀다는 그에겐 다만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비해 환경관리인에 대한 사회적인식이나 대우가 기대에 못미치는 현실이 하루 바빠 개선돼야한다는 절실한 바람이 있다.

그는 끝으로 환경관리업무에 대한 정부차원의 합리적이고도 체계적인 업무체제 확립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